



장재민, 〈Tolerable Things〉, 2015

한국 현대회화의 황홀한 미래를 꿈꾸며

《두렵지만 황홀한》 / 2.27~6.5 / 하이트 컬렉션

글 | 피지혜 객원기자

현대미술의 동향을 살펴보면, 사진, 미디어 아트, 설치미술이 전통 매체인 회화와 조각에 비해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매체가 주목받고, 매체 간의 혼성·혼합으로 인한 미술 장르의 확장에 대한 반증이다. 물론, 테크놀로지인 미술 제작 환경의 변화로 회화와 조각의 내용과 형식의 확장을 이끌기도 하였다. 한때, 회화는 ‘회화의 종말’이라는 위기를 겪었지만, 뒤이어 등장한 신표현주의(Neo-Expressionism)로 인해 해당 논란을 불식시켰다. 신표현주의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회화 이후의 회화는 그 영향력은 미미하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회화가 구시대적인 산물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회화만이 전해주는 고유한 매체의 특성과 표현력이 여전히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회화의 재조명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회화라는 한 장르에 국한시킨, 특히 미래의 한국 미술계를 이끌어 갈 신진 작가들의 단체전이 열린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하이트컬렉션의 신진 작가들을 발굴, 지원하는 《두렵지만 황홀한》은 작년에 개최된 《미래가 끝났을 때》의 후속 전시다. 두 전시는 불안정한 현실을 살고 있는 동시대 젊은이들의 초상을 담아냈다는 교집합을 형성한다. 한편, 2014년 《미래가 끝났을 때》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업들로 꾸며졌다면, 2015년 《두렵지만 황홀한》은 회화 한 장르에 한정시킨 작업들로 구성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13명의 작가들은 캔버스 위에 각자의 내러티브를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기록한다. “거대담론이 작은이야기들로 대체된다.”고 언급한 리오타르의 대목이 떠오르는 지점이다. 참여 작가들의 작업의 근간이 되는 각자의 내러티브는 개인의 밀착된 경험, 일상 속 개인의 호기심 어린 시선, 재현과 인식의 괴리, 새로운 표현 방식에 대한 탐구,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박종호, 왕선정, 정유선은 개인의 밀착된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을 시작한다. 박종호는 어린 시절 겪었던 정체성의 혼란과 현실에 대한 고민을 작업에 녹여내고, 왕선정은 바에서 일하며 마주했던 고뇌에 찬 남성들의 내면초상을 화폭에 담고, 정유선은 반려동물과 뜻하지 않은 이별을 맞이하며 느꼈던 죽음에 대한 사유를 계기로 작업한다.

최수연, 백경호, 조송, 유한숙, 최정주는 일상 속 개인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확장시킨 작업을 제작한다. 최수연은 삶을 지속 혹은 파괴하는 이중성을 지닌 종교단체들의 믿음에 흥미를 갖고, 백경호는 일상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잔상 및 감정의 복합적인 풍경을 만든다. 조송은 일상에서 떠오른 감정들을 글로 옮기고, 다시 적어둔 글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내고, 유한숙은 일상의 단상을 포스터 형식의 이미지와 텍스트로 치환시키며, ‘잠’을 키워드로 삼은 최정주는 영상매체에서 해당 장면을 포착해 캔버스에 옮긴다.

장재민, 김민호는 인식과 재현의 문제에 주목한다. 장재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왜곡되는 풍경을 그린다면, 김민호는 관찰자의 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풍경을 다수의 레이어가 축적된 이미지로 제작한다.

전현선, 정은영, 허수영은 회화의 새로운 표현 방식을 시도한다. 전현선은 대상과 배경이 모호한 이미지의 풍경으로 보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정은영은 유화물감으로 케이크와 김밥을 만들고, 직접 만든 케이크와 김밥을 캔버스에 던지거나 굴리는 등의 재기발랄한 작업을 선보이며, 허수영은 한 권의 책을 한 화면에 담거나, 최근에는 레지던시에서 바라본 1년의 풍경을 한 화면에 누적시키는 노동집약적인 작업을 시도한다.

《두렵지만 황홀한》은 동시대 한국 현대 회화의 현주소를 조망하는 자리로서 앞으로 한국 회화의 행보를 가능해줄 수 있다. 관람 후, 한동안 유한숙 작가의 “말로 그리는 그림”이라는 작품 속 문구가 자꾸 되뇌었다. 어떤 장르의 작품이든 감상하기에 앞서 작품 관련 레퍼런스가 요구되는 실정에서 회화만이 가진 고유한 표현력과 물질성이 그리웠다는 점이 이 전시를 흥미롭게 만든다. 다만 전시 제목 ‘두렵지만 황홀한’처럼 각박한 현대 사회 속 동시대 젊은이들의 불안한 심정, 그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패기를 대변하는 작가들의 태도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응원할 뿐이다.